江戶語에 나타나는 助動詞의 一段化 傾向에 관한 考察

— (さ)する와 (ら)るる간의 遲速 차이를 중심으로 —

金 鎔 均*

目 次

1. 序 論
2. 調査 資料 및 考察 方法
3. 助動詞의 一段化 實態
4. 一段化의 전체적인 傾向
5. 結 論

1. 序 論

본고에서는 江戶中期 이후 江戶語(이하, '江戶語'라고 약칭함)에 나타나는 助動詞의 一段化 傾向에 대해, 내부간 즉 (さ)する와 (ら)るる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助動詞의 一段化란 下二段型助動詞(「する・さする」「るる・らるる」등)가 下一段活用(「せる・させる」「れる・られる」등)으로 변화하는 現象을 의미한다 日本語史的인 관점에서 보면 그 변화는 動詞의 一段化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地域的인 면에서 보면 東國語와 上方語 및 江戶語와 上方語의 兩語간에 있어서 一段化의 遲速 차이가 보이는 가운데, 그 용례는 室町時代(1333~1603)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1], 江戶初期(慶長8年<1603>~貞享4年<1687>)의 점증기[2]와 中期(元祿1年<1688>~安永9年<1780>) 前半의 증가기[3] 및 後半의 병용기를 거쳐 전체적으로는 後期(天明1年<1781>~慶応3年<1867>)에 이르러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4]

---

* 高麗大學校 講師 日本語史

1) 蜂谷清人(1968)「狂言古本に見られる一段活用化の現象」『國語學』74, pp.58~59
小林祥次郎(1974)「足利學校本『莊子抄』の紹介」『國文學 言語と文藝』78, p.179
秋山洋一(1976)「上州長年寺藏『雜談之本』と一段活用化の現象」『國學院雜誌』77-9, pp.48~50

2) 拙稿(1999)「『雜兵物語』에 있어서 二段活用의 一段活用化現象 -東國語資料 및 上方語資料와 比較를 中心으로-」『日本語學硏究』1, 韓國日本語學會, pp.56~57
拙稿(2002)「근세초기 가미가타어(上方語)에 있어서 2단활용의 1단활용화현상에 대한 일고찰 -중기 가미가타어와 비교를 중심으로-」『日本文化硏究』6, 韓國日本學協會, pp.502~505

3) 坂梨隆三(1970)「近松世話物における二段活用と一段活用」『國語と國文學』47-10, pp.165~172
山縣浩(1982)「活用型の變化から見た上方繪入狂言本 -二段活用の一段化の場合-」『語文硏究』52, pp.171~172

4) 拙稿(2003a)「江戶語에 나타나는 二段活用의 一段化 傾向과 完了時期에 관한 考察 -江戶中期

이와 같은 변천 과정 속에서 江戸語에 나타나는 助動詞의 一段化 傾向 고찰시, 주목되는 時期는 江戸中期 이후, 특히 明和期(1764~1771) 이후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당시 이전까지 거의 보이지 않던 江戸語資料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용례 또한 풍부하여, 특히 (さ)する와 (ら)るる간의 遲速 차이를 포함한 一段化의 傾向 파악을 위한 체계적인 비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從來, 江戸語에 있어서 助動詞의 一段化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주로 湯澤幸吉郎[5]・奥村三雄[6]・小松壽雄[7]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부분 선행 연구는 動詞의 一段化에 중점을 두고 있고, 助動詞의 一段化에 한정해 보면 부분적인 용례의 언급 내지는 개괄적인 기술 정도에 그쳐, 당시 一段化의 전체상에 관한 구체적인 고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듯 하다. 특히 (さ)する와 (ら)るる간의 遲速 차이의 검토라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와 관련된 근래의 연구로서는 明和~文化期(1764~1817)의 江戸語資料를 조사 대상으로 한 拙稿[8]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또한 動詞의 一段化가 중심이고, 조사 자료가 助動詞 내부간의 遲速 차이를 검토하기에는 부족한 25種에 한정된 결과, 단지 (さ)する의 一段化率이 (ら)るる의 一段化率보다 높다는 비율만을 언급하는데 그쳤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에 의거하면서 明和~文化期의 자료 76種으로 조사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분석하고, 時期的으로 비슷한 明和~文政期(1764~1829)의 上方語資料 15種의 분석 결과(후술하는 <표5><표6><표7> 등 참조)를 통해 中期 이후 上方語(이하, '上方語'라고 약칭함)에 나타나는 助動詞의 一段化 傾向(①(さ)する의 一段化例는 보이지 않고 (ら)るる의 一段化例뿐이다 ② 音節數의 多少간, 즉 「る」와 「らる」간에 따른 一段化의 遲速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③一段化率이 비교적 높다 ④終止・連体形의 一段化 진행 속도는 已然形의 一段化보다 빠르다 ⑤文體的인 면에서 보면 會話文의 一段化 진행 속도는 地文의 一段化보다 빠르다[9])과 비교하면서, 江戸語에 보이는 助動詞의 一段化 실태와 진행 정도, 그리고 이를 통한 전체적인 傾向을 (さ)する와 (ら)るる간의 遲速 차이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이와 같은 고찰은 지금까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助動詞 내부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의 구체적인 傾向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10]는 점과 上方語의 一段化 傾向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이와 같은 傾向이 江戸語에만 나타나는 現象인지, 아니면 上方語에도

이후 上方語와 비교를 중심으로-」『日本文化學報』17, 韓國日本文化學會, pp.33~36
拙稿(2003b)「江戸中期 이후 上方語에 나타나는 二段活用의 一段化現象에 관한 考察 -一段化의 傾向과 完了時期를 중심으로-」『日本學報』55, 韓國日本學會, pp.31~33

5) 湯澤幸吉郎(1957)『增訂江戸言葉の研究』, 明治書院, pp.390~394, 506~509

6) 奥村三雄(1968)「所謂二段活用の一段化について -方言的事實から史的考察へ-」『近代語研究』2, 近代語學會編, p.225

7) 小松壽雄(1982)「近代の文法Ⅱ・江戸篇」『講座國語史4・文法史』, 大修館書店, p.547

8) 拙稿(2003a), 前揭書(4), pp.17~40

9) 拙稿(2003b), 前揭書(4)에서 조사 대상으로 한 上方語資料 24種 중 助動詞의 二段活用例 또는 一段化例가 등장하는 明和~文政期의 자료 15種(『異本郭中奇譚』『風流裸人形』『虛辭先生穴賢』『短歌藥葉』『北華通情』『うかれ草紙』『十界和尙話』『阿蘭陀鏡』『身体山吹色』『昇平樂』『南遊記』『当世嘘の川』『竊潛妻』『箱まくら』『北川蜆殼』 등 <洒落本大成에 의한다>)을 더욱 분석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단, 여기에서 江戸語資料에 비해 上方語資料가 수적으로 열세를 보여, 비교시 자칫 타당성이 결여되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당시 上方語資料의 부족에 따른 결과에 기인함을 밝혀둔다.

10) 從來, 助動詞 (さ)する와 (ら)るる 간의 一段化 遲速 차이에 대한 고찰은 室町時代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蜂谷清人(前揭書(1), pp.59~61)와 秋山洋一(前揭書(1), p.49)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용례수 부족에 따른 난점 때문에 兩語간에 있어서 나타나는 遲速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現象인지 그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전단계의 연구로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 調査 資料 및 考察 方法

조사 자료는 助動詞의 二段活用例 또는 一段化例가 등장하는 明和~文化期의 江戶語資料[1]~[76]까지 76種이고, 비교적 口頭語的인 성격이 강한 자료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成立(刊行)時期별로 보면 明和期의 자료가 [1]~[5]까지 5種, 安永期(1772~1780)의 자료가 [6]~[30]까지 25種, 天明期(1781~1788)의 자료가 [31]~[44]까지 14種, 寬政期(1789~1800)의 자료가 [45]~[65]까지 21種, 享和期(1801~1803)의 자료가 [66]~[73]까지 8種, 文化期(1804~1817)의 자료가 [74]~[76]까지 3種이다. 자료별로 보면 江戶咄本이 5種([6][7][9][23][59] 등), 黃表紙가 10種([12][13][32][34][37][38][44][46][51][56] 등), 滑稽本이 4種([73][74][75][76] 등)이고, 나머지는 모두 江戶洒落本으로 57種이다. 이 중에서 江戶咄本은 『岩波日本古典文學大系100』([7][9][23][59] 등)·『新本大糸の』([6]), 黃表紙는 『岩波日本古典文學大系59』, 滑稽本은 『小學館日本古典文學全集47』, 江戶洒落本은 『洒落本大成』을 底本으로 사용하였다. 이하, 본고에서 조사 대상으로 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郭中奇譚』(1769)
[2]『遊子方言』(1770)
[3]『辰巳之園』(1770)
[4]『兩國栞』(1771)
[5]『俠者方言』(1771)
[6]『樂牽頭』(1772)
[7]『鹿の子餠』(1772)
[8]『南閨雜話』(1773)
[9]『聞上手』(1773)
[10]『婦美車紫鹿子』(1774)
[11]『甲驛新話』(1775)
[12]『金々先生榮華夢』(1775)
[13]『高漫齊行脚日記』(1776)
[14]『郭中掃除雜編』(1777)
[15]『妓者呼子鳥』(1777)
[16]『契情買虎之卷』(1778)
[17]『一事千金』(1778)
[18]『深川新話』(1779)
[19]『美地の蠣殻』(1779)
[20]『伊賀越增補合羽之龍』(1779)
[21]『龍虎問答』(1779)
[22]『驛舍三友』(1779)
[23]『鯛の味噌津』(1779)
[24]『世說新語茶』(1772 ~1780)
[25]『粹町甲閨』(1772~1780)
[26]『喜夜來大根』(1772 ~1780)
[27]『道中粹語錄』(1780)
[28]『芳深交話』(1780)
[29]『遊婦里會談』(1780)
[30]『娼註銚子戱語』(1780)
[31]『通仁枕言葉』(1781)
[32]『見德一炊夢』(1781)
[33]『富賀川拜見』(1782)
[34]『御存商賣物』(1782)
[35]『卯地臭意』(1783)
[36]『深川手習草紙』(1785)
[37]『莫切自根金生木』(1785)
[38]『江戸生艶氣樺燒』(1785)
[39]『田舍芝居』(1786)
[40]『其あんか』(1786)
[41]『通言總籬』(1787)
[42]『古契三娼』(1787)
[43]『靑樓五雁金』(1788)
[44]『文武二道万石通』(1788)
[45]『自惚鏡』(1789)
[46]『孔子縞干時藍染』(1789)
[47]『傾城買四十八手』(1790)
[48]『格子戱語』(1790)
[49]『繁千話』(1790)
[50]『傾城眞之心』(1790)
[51]『心學早染艸』(1790)
[52]『錦之裏』(1791)
[53]『仕懸文庫』(1791)
[54]『娼妓絹　』(1791)
[55]『四ツ谷新宿西遊記』(1791)
[56]『敵討義女英』(1795)
[57]『傾城買二筋道』(1798)
[58]『辰巳婦言』(1798)
[59]『無事志有意』(1798)
[60]『猫謝羅子』(1799)
[61]『面美知之婬』(1789 ~1800)
[62]『靑樓惚多手買』(1789~1800)
[63]『契情買言告鳥』(1800)
[64]『大磯新話風俗通』(1800)
[65]『靑樓眞廓誌』(1800)
[66]『靑樓夜話色講釋』(1801)
[67]『廓之櫻』(1801)
[68]『甲子夜話』(1801)
[69]『喜和美多里』(1801)
[70]『靑樓娭言解』(1802)
[71]『靑樓小鍋立』(1802)
[72]『起承轉合』(1802)
[73]『東海道中膝栗毛・初編』(1802)
[74]『酩酊氣質』(1806)
[75]『浮世風呂・2編』(1810)
[76]『浮世床・初編』(1813)

고찰 방법은 먼저 자료 76種(단 序・跋은 자료에 따라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상존하는 만큼 고찰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제외한다)에 보이는 助動詞의 二段活用例와 一段化例(단, 본고의 경우 (さ)する와 (ら)るる간의 遲速 차이를 중심으로 한 고찰이기 때문에, 이른바 (ら)るる系인 「なさるる」「下さるる」「仰せらるる」 등과 「しむる」는 고찰 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전부 추출한 다음에 「せる」와 「させる」 및 「れる」와 「られる」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하도록 하였다. 또한 地文과 會話文 및 終止・連体形과 已然形의 一段化例로 나누어 전체적인 傾向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さ)する와 (ら)るる간의 遲速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료 76種의 成立時期에 따라 明和期의 자료 5種과 安永期의 자료 25種, 天明期의 자료 14種과 寬政期의 자료 21種 및 享和~文化期(1801~1817)의 자료 11種으로 분류하고, 또한 자료에 따라 江戸洒落本 57 種과 江戸咄本 5 種, 黃表

紙 10種과 滑稽本 4種으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する」와 「さする」 및 「るる」와 「らるる」간, 즉 音節數(連用形에 있어서 音節數를 의미한다. 이하, 동)의 多少에 따른 遲速 차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도 병행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술한 上方語에 있어서 一段化의 전체적인 傾向과 비교하면서 고찰하도록 하였다.

3. 助動詞의 一段化 實態

江戶語에 나타나는 助動詞의 一段化의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明和~文化期의 자료 [1]~[76]까지 등장하는 二段活用例(「する・さする」「るる・らるる」 등)와 一段化例(「せる・させる」「れる・られる」 등)를 각 자료별로 地文과 會話文 및 終止・連体形과 已然形으로 분류하여 <표1>로, 이를 토대로 76種에 보이는 전체적인 傾向 파악을 위한 一段化率을 <표2>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 助動詞의 一段化 實態

資料		文	活用	(さ)する				(ら)るる			
				する		さする		るる		らるる	
				二段	一段	二段	一段	二段	一段	二段	一段
明和	[1]	地									
		會					1		2		
	[2]	地									
		會		3			1				
	[3]	地					1				
		會		1				1			
	[4]	地					2				
		會		1							
	[5]	地									
		會		2							
安永	[6]	地							1		
		會					1	2			
	[7]	地		(1)			4(1)				
		會		1			1	3			
	[8]	地									
		會		1				3		1	
	[9]	地									
		會					1		1	1	
	[10]	地				1	1		1		
		會		1				4		1	
	[11]	地									
		會						3		2	
	[12]	地		1							
		會									
	[13]	地						1			
		會					1				
	[14]	地		1							
		會		(1)			5	1	1		
	[15]	地	1		(1)						
		會		(1)			1	4			

資料		文	活用	(さ)する				(ら)るる			
				する		さする		るる		らるる	
				二段	一段	二段	一段	二段	一段	二段	一段
安永	[16]	地		1	1			1			
		會			1				5		
	[17]	地						3		2	
		會			1			(1)	2	2	
	[18]	地									
		會							2		2
	[19]	地									
		會			1				1		
	[20]	地			1						
		會								1(1)	
	[21]	地						1			
		會					1	3		1	
	[22]	地									
		會							1		1
	[23]	地									
		會							2		2
	[24]	地									
		會			1						
	[25]	地									1
		會			1(1)				1		1
	[26]	地									
		會							5		
	[27]	地									
		會							1		
	[28]	地									
		會			1			1			
	[29]	地									
		會			2				5		
	[30]	地						1			
		會			1		1				2

資料		文	活用 (さ)する				(ら)るる			
			する		さする		るる		らるる	
			二段	一段	二段	一段	二段	一段	二段	一段
天明	[31]	地				1				
		會				1		1		
	[32]	地								
		會		1						
	[33]	地		2						
		會				1		5		
	[34]	地		2				1		
		會		1						
	[35]	地		1						
		會		1				4		1
	[36]	地								
		會		1				4(1)		
	[37]	地		2		1				
		會		2						2
	[38]	地		5		2		2		1
		會								1
	[39]	地								
		會								1
	[40]	地		1			1			
		會						2		
	[41]	地		2			1	2		
		會		3				1		1
	[42]	地	1				3(1)		2	
		會						2		
	[43]	地								
		會		3				1		
	[44]	地					1			
		會						2		
寬政	[45]	地	1	2			1(1)	1		1
		會		1				4		1
	[46]	地					1	1		
		會						1		
	[47]	地	1	1		1	2			
		會		1				2		1
	[48]	地		2			1			1
		會		2				5		1
	[49]	地							1	
		會						1		
	[50]	地					2			
		會						1		
	[51]	地					1	1		
		會								
	[52]	地						1		
		會					2	1		
	[53]	地	1	3			2	1		1
		會						6		

資料		文	活用 (さ)する				(ら)るる			
			する		さする		るる		らるる	
			二段	一段	二段	一段	二段	一段	二段	一段
寬政	[54]	地	1	1				1		2
		會		2				2	1	1
	[55]	地		1						
		會						1		
	[56]	地					2			
		會					1			
	[57]	地					2			
		會		1				4		1
	[58]	地		1				2		
		會								1
	[59]	地		(1)						
		會		4				6		
	[60]	地		1				2		1
		會				1		1		
	[61]	地	1				2			
		會		1		1		1		1
	[62]	地		1					1	
		會								
	[63]	地					2			1
		會					1	8	1	2
	[64]	地		2			1			1
		會		1		1	1	4(1)		1
	[65]	地					1			
		會		1				1		
享和	[66]	地	2				3	1	1	1
		會						2		
	[67]	地		1			1(1)			
		會				2(1)	2	8	1	2
	[68]	地		1						
		會		1				2	1	1
	[69]	地					1			
		會		1				1		1
	[70]	地		1			1			
		會		1		1		7		2
	[71]	地		1			1			
		會		2			1	7(1)		1
	[72]	地					1			
		會						2		
	[73]	地		1						
		會		6				4		
文化	[74]	地								
		會		1(1)				3		
	[75]	地								
		會		8		1		4		4
	[76]	地								
		會		5(1)		1		14		3

＊ 地는 地文, 會는 會話文(이하, 동)을 의미하고, 숫자는 終止・連体形, ( )안의 숫자는 已然形의 용례수를 의미한다.

<표2> 助動詞의 一段化率

文體	活用形	(さ)する				(ら)るる				(さ)する合計		(ら)るる合計		總計	
		する		さする		るる		らるる							
		二段	一段	二段	一段	二段	一段	二段	一段	二段	一段	二段	一段	二段	一段
地文	止・体	10	39		6	48	17	9	11	10	45	57	28	67	73
	(一段化率)		(79.6)		(100)		(26.2)		(55.0)		(81.8)		(32.9)		(52.1)
	已		2	1		4				1	2	4		5	2
	(一段化率)		(100)		(0)		(0)				(66.7)		(0)		(28.6)
	計	10	41	1	6	52	17	9	11	11	47	61	28	72	75
	(一段化率)		(80.4)		(85.7)		(24.6)		(55.0)		(81.0)		(31.5)		(51.0)
會話文	止・体		70		13	23	173	10	43		83	33	216	33	299
	(一段化率)		(100)		(100)		(88.3)		(81.1)		(100)		(86.7)		(90.1)
	已		5		1	1	3	1			6	2	3	2	9
	(一段化率)		(100)		(100)		(75.0)		(0)		(100)		(60.0)		(81.8)
	計		75		14	24	176	11	43		89	35	219	35	308
	(一段化率)		(100)		(100)		(88.0)		(79.6)		(100)		(86.2)		(89.8)
計	止・体	10	109		19	71	190	19	54	10	128	90	244	100	372
	(一段化率)		(91.6)		(100)		(72.8)		(74.0)		(92.8)		(73.1)		(78.8)
	已		7	1	1	5	3	1		1	8	6	3	7	11
	(一段化率)		(100)		(50.0)		(37.5)		(0)		(88.9)		(33.3)		(61.1)
	計	10	116	1	20	76	193	20	54	11	136	96	247	107	383
	(一段化率)		(92.1)		(95.2)		(71.7)		(73.0)		(92.5)		(72.0)		(78.2)

＊ 止・体는 終止形과 連体形, 已는 已然形을 의미한다(이하, 동).

4. 一段化의 전체적인 傾向

전술한 <표1>의 助動詞의 一段化 실태와 <표2>의 一段化率, 그리고 자료 76種의 전체적인 실태 분석 결과를 통해 江戸語에 나타나는 助動詞에 있어서 一段化의 전체적인 傾向으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

① (さ)する의 一段化 진행 속도는 (ら)るる의 一段化보다 빠르다.
② 「する」의 一段化 진행 속도는 「るる」의 一段化보다 빠르고, 「さする」의 一段化 진행 속도는 「らるる」의 一段化보다 빠르다.
③ 音節數의 多少간, 즉 「する」와 「さする」 및 「るる」와 「らるる」간에 따른 一段化의 遲速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④ 江戸語의 一段化 진행 속도는 上方語의 一段化보다 빠르다.
⑤ 終止・連体形의 一段化 진행 속도는 已然形의 一段化보다 빠르다.

⑥ 文體的인 면에서 보면 會話文의 一段化 진행 속도는 地文의 一段化보다 빠르다.

먼저 傾向①은 전술한 <표2>에 보이는 (さ)する의 一段化率과 (ら)るる의 一段化率과의 비교를 통해 특징적인 傾向으로서 인정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さ)する의 一段化率(92.5%)이 (ら)るる의 一段化率(72.0%)보다 우위를 보이고, 이와 같은 우위는 地文과 會話文은 물론, 活用形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さ)する의 경우, 地文의 一段化率(81.0%) 및 會話文의 一段化率(100%)은 (ら)るる에 있어서 地文의 一段化率(31.5%) 및 會話文의 一段化率(86.2%)보다 우위를 보이고, 특히 地文의 경우는 그 차이가 더욱 현저히 나타난다. 또한 (さ)する의 경우, 終止・連体形의 一段化率(92.8%) 및 已然形의 一段化率(88.9%)은 (ら)るる에 있어서 終止・連体形의 一段化率(73.1%) 및 已然形의 一段化率(33.3%)보다 우위를 보이고, 이와 같은 우위는 地文과 會話文의 活用形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인정된다.

특히 여기에서 傾向①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각 자료의 成立時期와 자료에 따른 좀더 분석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먼저 전술한 <표1>을 토대로 각 자료의 成立時期에 따라, 明和期 자료 5種과 安永期의 자료 25種, 天明期의 자료 14種과 寛政期의 자료 21種, 그리고 享和~文化期의 자료 11種으로 분류하여, <표3>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 江戸語資料 76種의 成立時期에 따른 一段化率

資料＼活用		(さ)する						(ら)るる						(さ)する合計			(ら)るる合計		
		する			さする			るる			らるる								
		二段	一段	%	二段	一段	%	二段	一段	%	二段	一段	%	二段	一段	%	二段	一段	%
[A] 明和期 5種 (1769~1771)	地							3		0							3		0
	會		7	100		1	100	1	3	75.0					8	100	1	3	75.0
	計		7	100		1	100	4	3	42.9					8	100	4	3	42.9
[B] 安永期 25種 (1772~1780)	地	2	5	71.4	1	1	50.0	12	1	7.7	4	1	20.0	3	6	66.7	16	2	11.1
	會		15	100		2	100	15	45	75.0	7	13	65.0		17	100	22	58	72.5
	計	2	20	90.9	1	3	75.0	27	46	63.0	11	14	56.0	3	23	88.5	38	60	61.2
[C] 天明期 14種 (1781~1788)	地	1	15	93.8		4	100	7	5	41.7	2	1	33.3	1	19	95.0	9	6	40.0
	會		12	100		2	100		23	100		6	100		14	100		29	100
	計	1	27	96.4		6	100	7	28	80.0	2	7	77.8	1	33	97.1	9	35	79.5
[D] 寛政期 21種 (1789~1800)	地	5	16	76.2		1	100	21	10	32.3	2	8	80.0	5	17	77.3	23	18	43.9
	會		14	100		3	100	5	50	90.9	2	10	83.3		17	100	7	60	89.6
	計	5	30	85.7		4	100	26	60	69.8	4	18	81.8	5	34	87.2	30	78	72.2
[E] 享和~文化期 11種 (1801~1813)	地	2	5	71.4				9	1	10.0	1	1	50.0	2	5	71.4	10	2	16.7
	會		27	100		6	100	3	55	94.8	2	14	87.5		33	100	5	69	93.2
	計	2	32	94.1		6	100	12	56	82.4	3	15	83.3	2	38	95.0	15	71	82.6

<표3>을 통해 알 수 있는 특징적인 사실은 각 자료의 成立時期에 따른 一段化率의 비교를 통해서도 (さ)する의 一段化率이 (ら)るる의 一段化率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さ)する의 경우, 자료[A](100%)·[B](88.5%)·[C](97.1%)·[D](87.2%)·[E](95.0%) 등의 一段化率은 (ら)るる의 자료[A](42.9%)·[B](61.2%)·[C](79.5%)·[D](72.2%)·[E](82.6%) 등의 一段化率보다 우위가 인정된다. 또한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地文의 경우, (さ)する의 용례가 보이지 않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자료[A]와, 會話文의 경우 兩語 모두 100%의 一段化率을 보이는 자료[C]를 제외한 (さ)する의 一段化率은 (ら)るる의 一段化率보다 우위가 인정된다.

그리고 傾向①에 대한 입증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전술한 <표1>을 토대로 각 자료에 따라, 江戸洒落本 57種과 江戸咄本 5種, 黃表紙 10種과 滑稽本 4種으로 분류하여, <표4>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4> 江戸語資料 76種의 資料에 따른 一段化率

資料 \ 活用		(さ)する						(ら)るる						(さ)する 合計			(ら)るる 合計		
		する			さする			るる			らるる								
		二段	一段	%	二段	一段	%	二段	一段	%	二段	一段	%	二段	一段	%	二段	一段	%
[A] 洒落本 57種 (1769~1802)	地	10	28	73.7	1	3	75.0	42	11	20.8	8	10	55.6	11	31	73.8	50	21	29.6
	會		44	100		12	100	19	135	87.7	10	30	75.0		56	100	29	165	85.1
	計	10	72	87.8	1	15	93.8	61	146	70.5	18	40	69.0	11	87	88.8	79	186	70.2
[B] 咄本 5種 (1772~1798)	地		2	100				5		0	1		0		2	100	6		0
	會		5	100				3	13	81.3	1	3	75.0		5	100	4	16	80.0
	計		7	100				8	13	61.9	2	3	60.0		7	100	10	16	61.5
[C] 黃表紙 10種 (1775~1795)	地		10	100		3	100	5	6	54.5		1	100		13	100	5	7	58.3
	會		4	100				2	3	60.0		3	100		4	100	2	6	75.0
	計		14	100		3	100	7	9	56.3		4	100		17	100	7	13	65.0
[D] 滑稽本 4種 (1802~1813)	地		1	100											1	100			
	會		22	100		2	100		25	100		7	100		24	100		32	100
	計		23	100		2	100		25	100		7	100		25	100		32	100

<표4>를 통해 알 수 있는 특징적인 사실 또한 전술한 成立時期에 따른 분석 결과와 대동소이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兩語 모두 100%의 一段化率을 보이는 자료[D]를 제외한 (さ)する의 경우, 자료[A](88.8%)·[B](100%)·[C](100%) 등의 一段化率은 (ら)るる의 자료[A](70.2%)·[B](61.5%)·[C](65.0%)등의 一段化率보다 우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내부적으로 살펴보아도 地文과 會話文의 경우, 전술한 자료[D]를 제외한 자료[A][B][C] 등에 있어서 (さ)する의 一段化率은 (ら)るる의 一段化率보다 높게 나타나, 이와 같은 우위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와 같은 우위는 후술하는 <표5>, 즉 前接語의 音節數가 동일한 상황하에서의 비교를 통해서도 전체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더욱 확실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傾向①은 결과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이와 같은 傾向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보면 다음 예문은 주목된다.

[45] ことばつかひをうれしがらせるよふにいふべし。はしたなきあななどはきつくきろふものなればいふべからず二かいぢうのしんぞうに何さんはおもろしいきやくじんといわるれば。ひとしを何事によらずおもいつかるゝものなり。(自惚鏡, 317上10)

[68] そこがむづかしい様子ゆへかいつてあんまりいつてはかんをつけらるゝもとひと…… 内藤宿のとうがらしめだつたにそばへよりつかせることじやァねへといふところへ庄が新造が來て (甲之夜話, 73上17)

이를 통해 (さ)する와 (ら)るる간에 있어서 一段化의 遲速 차이의 일단면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역시 (さ)する의 一段化 진행 속도는 (ら)るる의 一段化보다 빠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上方語의 경우는 후술하는 <표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さ)する의 一段化例는 보이지 않고, (ら)るる의 一段化例만 보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遲速 차이가 江戶語에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傾向인지, 아니면 上方語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傾向인지는 금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11].

傾向② 또한 전술한 <표2>에 보이는「する」와「るる」및「さする」와「らるる」간에 있어서 一段化率의 비교를 통해 뚜렷한 傾向으로서 인정된다 하겠다. 전체적으로 보면「する」의 一段化率(92.1%)이「るる」의 一段化率(71.7%)보다,「さする」의 一段化率(95.2%)이「らるる」의 一段化率(73.0%)보다 우위를 보이고, 이와 같은 우위는 地文과 會話文 및 活用形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する」의 경우, 地文의 一段化率(80.4%) 및 會話文의 一段化率(100%)은「るる」에 있어서 地文의 一段化率(24.6%) 및 會話文의 一段化率(88.0%)보다 우위를 보이고,「さする」의 경우 地文의 一段化率(85.7%) 및 會話文의 一段化率(100%)은「らるる」에 있어서 地文의 一段化率(55.0%) 및 會話文의 一段化率(79.6%)보다 우위를 보이는 상황이다. 그리고「する」의 경우, 終止·連体形의 一段化率(91.6%) 및 已然形의 一段化率(100%)은「るる」에 있어서 終止·連体形의 一段化率(72.8%) 및 已然形의 一段化率(37.5%)보다,「さする」의 경우 終止·連体形의 一段化率(100%) 및 已然形의 一段化率(50.0%)은「らるる」에 있어서 終止·連体形의 一段化率(74.0%) 및 已然形의 一段化率(0%)보다 우위를 보이고, 이와 같은 우위는 地文(단,「らるる」의 경우 용례 자체가 보이지 않아「さする」와 비교가 불가능한 已然形은 제외한다)과 會話文의 活用形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인정된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우위는 전술한 <표3>의 成立時期에 따른 一段化率과 <표4>의 자료에 따른 一段化率 및 후술하는 <표5>의 前接語 音節數가 동일한 상황하에서의 一段化率의 비교를 통해서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傾向②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보면 다음 예문은 주목을 끈다.

[14] 祖禮 こんなものではないと鼻高ふいはるゝおかし (郭中掃除雜編, 85上1)

祖禮 おしい事にへゆなら例の鳥の山めくらに喰はせればよい (상동, 86上6)

[67] 揚 わるひ事があるなら呵るゝとも責らるゝとも覺悟のうへ (廓之櫻, 111下4)

揚 指でもつけさせる事ではざんせん今に仲の町へおくつていきひす (상동, 111下9)

---

11) 奧村三雄(1967)의 (「近代京阪語の使役辭」『國語國文』36-1, p.41)에 의하면 近世 上方語의 경우, 助動詞 (さ)する의 一段化例가 드문 원인이 下二段活用에서 下一段化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四段化했다는 데 있다고 지적된다.

자료[14]와 [67]의 예문은 동일 인물에 의한 會話文으로 前接語의 音節數까지 같은 상황인데, 이는 「する」의 一段化 진행 속도가 「るる」보다, 「さする」의 一段化 진행 속도가 「らるる」의 一段化보다 빠르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實例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편, 上方語의 경우는 전술한 傾向①과 마찬가지로 후술하는 <표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さ)するの 一段化例 부재로 인해, 兩語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의 비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傾向③은 音節數의 多少에 따른 一段化의 遲速 차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動詞의 경우, 音節數의 多少에 따라 遲速 차이가 인정되어 音節數가 적은 쪽이 一段化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12]. 또한 助動詞의 一段化 진행 속도가 動詞의 一段化보다 늦은 주된 원인은 受動 또는 使役으로서 의식적으로 사용됨과 동시에 動詞와 결합한 형태 전체가 하나의 언어단위, 즉 多音節語로 인식된 결과에 기인한다[13]고 일컬어진다. 실제로 篠田香織는 「るる」의 一段化 진행 속도가 「らるる」의 一段化보다 빠른 傾向이 보인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14].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する」의 一段化 진행 속도는 「さする」의 一段化보다, 「るる」의 一段化 진행 속도는 「らるる」의 一段化보다 빠를 것으로 충분히 예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술한 <표2>를 통해 보면, 이와 같은 예상과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地文과 會話文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する」의 一段化率(92.1%)과 「さする」의 一段化率(95.2%) 및 「るる」의 一段化率(71.7%)과 「らるる」의 一段化率(73.0%)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音節數가 많은 쪽이 약간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전술한 <표3>의 成立時期에 따른 一段化率과 <표4>의 자료에 따른 一段化率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여기에서 傾向③을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前接語 音節數의 多少와의 관계일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前接語의 音節數가 동일한 상황하에서 「する」와 「さする」 및 「るる」와 「らるる」로 분류하여, <표5>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가 兩語간에 있어서 나타나는 遲速 차이의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표5> 前接語의 音節數에 따른 一段化率

12) 拙稿(2003a), 前揭書(4), pp.28 ~30
13) 蜂谷清人, 前揭書(1), p.56
14) 篠田香織(1969) 「二段活用語の一段化及びそこに見る言葉への意識」『國文目白』8, p.59. 단, 여기에서는 용례수의 부족과 함께 前接語의 音節數를 고려하지 않은 지적인 만큼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고 생각된다.

資料語			一音節			二音節			三音節			四音節			五音節			六音節		
			二段	一段	%	二段	一段	%	二段	一段	%	二段	一段	%	二段	一段	%	二段	一段	%
上方語資料15種	るる	地				(1)	1	100 (0)	4	2	33.3	1		0	1		0			
		會				2	17	89.5	10	9	47.4	2	1	33.3	3		0			
		計				2 (1)	18	90.0 (0)	14	11	44.0	3	1	25.0	4		0			
	らるる	地	2		0	1 (1)	1	50.0 (0)	1		0									
		會	2	3	60.0	1		0	1	3	75.0									
		計	4	3	42.9	2 (1)	1	33.3 (0)	2	3	60.0									
江戸語資料76種	する	地				8	20	71.4	2	11	84.6		4	100		6	100			
		會					51	100		15	100		5	100		4	100			
		計				8	71	89.9	2	26	92.9		9	100		10	100			
	さする	地		1	100		4	100		1	100	1		0						
		會					9	100		2	100		3	100						
		計		1	100		13	100		3	100	1	3	75.0						
	るる	地				34	5	12.8	11	5	31.3	2	5	71.4	5	2	28.6			
		會				11	84	88.4	5	54	91.5	5	27	84.4	2	11	84.6	1		0
		計				45	89	66.4	16	59	78.7	7	32	82.1	7	13	65.0	1		0
	らるる	地	2		0	3	8	72.7	2	1	33.3	1	2	66.7	1		0			
		會	4	20	83.3	4	13	76.5	1	8	88.9	2	2	50.0						
		計	6	20	76.9	7	21	75.0	3	9	75.0	3	4	57.1	1		0			

*上方語資料의 경우,「する」와「さする」는 각각 1例에 불과해 편의상「する」는「るる」에,「さする」는「らるる」에 포함시켜 (로 나타냈다.

그러나 이 또한 <표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술한 상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비교 대상의 용례가 없거나 용례수가 극소수인 경우 (一音節・五音節・六音節 등)를 제외한 二音節・三音節・四音節 등을 중심으로 보면 語와 音節數 및 地文과 會話文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뚜렷한 遲速 차이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二音節과 三音節을 중심으로 보면 會話文의 경우,「する」의 一段化率(100%)과「さする」의 一段化率(100%)은 동등하게 나타나지만, 地文의 경우「する」(二音節:71.4%, 三音節 : 84.6%)의 一段化率은 오히려 音節數가 많은「さする」(二音節:100%, 三音節:100%)의 一段化率보다 낮게 나타난다. 또한 會話文의 경우,「るる」(二音節:88.4%, 三音節:91.5%)의 一段化率은 音節數가 많은「らるる」(二音節 : 76.5%, 三音節:88.9%)의 一段化率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이와는 반대로 地文의 경우「るる」(二音節:12.8%, 三音節:31.3%)의 一段化率은 音節數가 많은「らるる」(二音節:72.7%, 三音節:33.3%)의 一段化率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兩語간에 있어서 일정한 遲速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傾向③은 전술한 <표5>의「るる」와「らるる」를 중심으로 본 上方語의 傾向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助動詞의 내부간에 있어서 보이는 音節數의 차이보다는 前接語와 결합한 형태 전체가 이미 하나의 동일한 多音節語로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傾向④는 地域的인 면에서 보면 江戸語와 上方語의 兩語간에 있어서 一段化의 遲速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傾向④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上方語資料 15種과의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표6> 上方語資料와 江戸語資料에 있어서 一段化率

資料	文體 \ 活用	(さ)する				(ら)るる				(さ)する 合計		(ら)るる 合計		總計	
		する		さする		るる		らるる							
		二段	一段	二段	一段	二段	一段	二段	一段	二段	一段	二段	一段	二段	一段
上方語資料 15種	地文	1		1		6	3	4	1	2		10	4	12	4
	(一段化率)		(0)		(0)		(33.3)		(20.0)		(0)		(28.6)		(25.0)
	會話文					17	27	4	6			21	33	21	33
	(一段化率)						(61.4)		(60.0)				(61.1)		(61.1)
	計	1		1		23	30	8	7	2		31	37	33	37
	(一段化率)		(0)		(0)		(56.6)		(46.7)		(0)		(54.4)		(52.9)
江戸語資料 76種	地文	10	41	1	6	52	17	9	11	11	47	61	28	72	75
	(一段化率)		(80.4)		(85.7)		(24.6)		(55.0)		(81.0)		(31.5)		(51.0)
	會話文		75		14	24	176	11	43		89	35	219	35	308
	(一段化率)		(100)		(100)		(88.0)		(79.6)		(100)		(86.2)		(89.8)
	計	10	116	1	20	76	193	20	54	11	136	96	247	107	383
	(一段化率)		(92.1)		(95.2)		(71.7)		(73.0)		(92.5)		(72.0)		(78.2)

<표6>을 통해 알 수 있는 특징적인 사실은 江戸語資料에 보이는 一段化率(78.2%)이 매우 높고, 비슷한 時期의 上方語資料의 一段化率(52.9%)보다 현저한 우위를 보인다는 점일 것이다. 이와 같은 우위는 地文 및 會話文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인정되어, 江戸語資料에 있어서 地文의 一段化率(51.0%) 및 會話文의 一段化率(89.8%)은 上方語資料에 있어서 地文의 一段化率(25.0%) 및 會話文의 一段化率(61.1%)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한 이와 같은 우위는 江戸語資料에 있어서 (さ)する의 一段化率(92.5%) 및 (ら)るる의 一段化率(72.0%)과 上方語資料에 있어서 (さ)する의 一段化率(0%) 및 (ら)るる의 一段化率(54.4%)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여겨진다 하겠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이 단순한 수치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江戸語에 있어서 진일보한 一段化의 양상 즉 地域的인 면에서 보면, 이를 통해 動詞뿐만 아니라 助動詞 역시 江戸語의 一段化 진행 속도는 上方語의 一段化보다 빠르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兩語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가 보이는 주된 원인은 江戸語의 경우, 이미 上方語에 비해 진일보한 一段化의 양상을 보이는 東國語를 기반으로 발달한 데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15]. 실제로 室町時代[16] 및 江戸初期의 東國語에 있어서 一段化의 진행 속도는 上方語의 一段化보다 빠른 상황이다[17].

또한 傾向⑤는 <표7>에 보이는 終止・連体形의 一段化率(78.8%)이 已然形의 一段化率(61.1%)보다 우위를 보이는 상황을 통해 하나의 傾向으로서 인정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위는 終止・連体形의 一段化率(92.8%)이 已然形의 一段化率(88.9%)보다 근소한 우위를 보이는 (さ)する와, 終止・連体形의 一段化率(73.1%)이 已然形의 一段化率(33.3%)보다 현저한 우위를 보이는 (ら)るる를 통해서도 인정된다.

<표7> 助動詞의 活用形에 있어서 一段化率

15) 拙稿(2003a), 前揭書(4), p.27
16) 秋山洋一, 前揭書(1), p.50
17) 拙稿(1999), 前揭書 (2), p.57

資料		活用形	(さ)する			(ら)るる			合計		
			二段	一段	一段化率	二段	一段	一段化率	二段	一段	一段化率
上方語資料15種	地文	止・体	1		0	9	4	30.8	10	4	28.6
		已	1		0	1		0	2		0
	會話文	止・体				21	33	61.1	21	33	61.1
		已									
	計	止・体	1		0	30	37	55.2	31	37	54.4
		已	1		0	1		0	2		0
江戸語資料76種	地文	止・体	10	45	81.8	57	28	32.9	67	73	52.1
		已	1	2	66.7	4		0	5	2	28.6
	會話文	止・体		83	100	33	216	86.7	33	299	90.1
		已		6	100	2	3	60.0	2	9	81.8
	計	止・体	10	128	92.8	90	244	73.1	100	372	78.8
		已	1	8	88.9	6	3	33.3	7	11	61.1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傾向⑤는 地文을 중심으로 본 上方語(단, 會話文의 경우 已然形의 용례가 보이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하다)의 傾向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주된 원인으로는 본래 已然形의 경우 終止・連体形에 비해 사용 기회가 적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사실은 <표7>의 上方語資料와 江戸語資料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내부적으로 보면 會話文의 경우, 終止・連体形의 一段化率(52.1%)이 已然形의 一段化率(28.6%)보다 현저한 우위를 보이는 地文과는 달리, 終止・連体形의 一段化率(90.1%)과 已然形의 一段化率(81.8%)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傾向의 반영, 즉 終止・連体形과 已然形간에 있어서 一段化의 遲速 차이를 엿볼 수 없는 예문이 있는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67] 氣を引立させれど此頃(このごろ)はゆうれいじみどふでこつちのものとは思われぬモシ死(しん)たらさぞ迷(まよ)てとおもひすごしがしられると (廓之櫻, 114上16)

[71] わたしやつきたされる覺は[3]これほどおざりいせんとはいふものの…… これほどまでだまされゝばだまされへ[0]すのかと (靑樓小鍋立, 366下12)

이처럼 會話文의 경우, 兩活用形간에 있어서 一段化率의 차이가 근소하다는 것은 動詞[18]와 마찬가지로 助動詞 또한 活用形에 관계없이 江戸語에 있어서 진일보한 一段化의 반영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특징으로 생각된다.

한편, 助動詞에 있어서 已然形의 一段化例는 日本語史 全時代를 통해서도 극히 드문 상황인데[19], 전술한 것([14][67][71] 등)을 제외한 江戸語資料에 보이는 구체 예문을 모두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7] 水をのませれば、漸々氣がつき、見たりや、(鹿の子餠, 377-5)
[15] こいつはいわせればとほうもねい (妓者呼子鳥, 116上10)

---

18) 拙稿(2003a), 前揭書(4), p.28

19)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에 한정해 보면 江戸初期『三河物語』(1622~1626)에 보이는 다음의 「れゝ」가 주목되는 정도이다.
◦若も御台といわれゝバ、しうげんだが、いわれぬ時のぶしうげんハの御身きゝ給へ。(原本三河　物語・影印篇, 下260-2)

[25] 理害(りげへ)をといて聞せれば一國ゥいやあがるからの事よ (粹町甲閨, 88下3)
[36] まんざらかきでも。そう云(いわ)れゝば嘻(うれ)しくつて成やせむ (深川手習草紙, 160下14)
[59] どふも氣がしれねへ。譯をぬかせとくら(え)はせれば、 (無事志有意, 495-15)
[64] おめへにころされゝはわたいわほんもふ(え)た (大磯新話風俗通, 28上17)
[74] しんをきらせれば消おる (酩酊(え)氣質, 222-6)
[76] あんなに燒くなら大福餅(たいふくもち)でも賣らせればいゝ (浮世床, 292-7)

그리고 文體的인 면에서 나타나는 傾向⑥은 전술한 <표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뚜렷한 傾向으로서 인정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會話文의 一段化率(89.8%)은 地文의 一段化率(51.0%)보다 현저한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이와 같은 우위는 活用形과 (さ)する 및 (ら)るる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먼저 活用形의 경우를 보면 會話文에 있어서 終止・連体形의 一段化率(90.1%) 및 已然形의 一段化率(81.8%)은 地文에 있어서 終止・連体形의 一段化率(52.1%) 및 已然形의 一段化率(28.6%)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또한 (さ)する에 있어서 會話文의 一段化率(100%)은 地文의 一段化率(81.0%)보다 높게 나타나고, (ら)るる에 있어서 會話文의 一段化率(86.2%)은 地文의 一段化率(31.5%)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사실은 전술한 <표3>의 成立時期에 따른 一段化率과 <표4>의 자료에 따른 一段化率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地文의 一段化 진행 속도가 會話文의 一段化보다 늦은 원인은 본래 地文의 성격, 즉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된 언어보다도 더욱 규범적인 언어를 사용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傾向⑥은 上方語와 傾向을 같이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一段化의 전체적인 傾向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 중에서 傾向⑤⑥은 上方語 動詞[20]와, ④⑤⑥은 江戸語 動詞의 傾向과 일치하고[21], 특히④⑥은 제한된 江戸語資料를 통해 살펴본 前稿에 있어서 助動詞의 傾向과도 일치하여[22], 조사 자료 부족에 따른 前稿의 고찰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인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5. 結 論

지금까지 江戸語에 나타나는 助動詞의 一段化 傾向에 대해, (さ)する와 (ら)るる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를 중심으로 하여 明和~文化期의 江戸語資料 76種의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上方語와의 비교를 통해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助動詞의 내부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를 중심으로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지적할 수 있었는데, 이를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さ)する의 一段化(92.5%) 진행 속도는 (ら)るる의 一段化(72.0%)보다 빠르다.

둘째, 「する」의 一段化(92.1%) 진행 속도는 「るる」의 一段化(71.7%)보다 빠르고, 「さする」의 一段化(95.2%) 진행 속도는 「らるる」의 一段化(73.0%)보다 빠르다.

셋째, 音節數의 多少간, 즉 「する」와 「さする」 및 「るる」와 「らるる」간에 따른 一段化의 遲速

20) 拙稿(2003b), 前揭書(4), pp.22
21) 拙稿(2003a), 前揭書(4), pp.24 ~25
22) 拙稿(2003a), 前揭書(4), pp.27 ~32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넷째, 江戶語의 一段化(78.2%) 진행 속도는 上方語의 一段化(52.9%)보다 빠르다.

다섯째, 終止・連体形의 一段化(78.8%) 진행 속도는 已然形의 一段化(61.1%)보다 빠르다.

여섯째, 文體的인 면에서 보면 會話文의 一段化(89.8%) 진행 속도는 地文의 一段化(51.0%)보다 빠르다.

결국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助動詞의 경우, 一段化의 진행 과정은 語 및 地域, 活用形 및 文體 안에서 다양한 遲速 차이가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助動詞의 경우, 動詞의 一段化 傾向과는 달리 音節數의 多少간에 따른 遲速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금후는 이와 같은 고찰 결과를 토대로, (さ)する의 一段化 진행 속도가 (ら)るる의 一段化보다 빠르다는 遲速 차이의 원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이 兩語간에 있어서 보이는 遲速 차이의 傾向이 단지 江戶語에만 나타나는 方言史的 특징인지, 아니면 上方語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文法史的 특징인지 그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 자료를 助動詞의 一段化例가 보이기 시작하는 室町時代부터 江戶初・中期까지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參考文獻】

・秋山洋一(1976)「上州長年寺藏『雜談之本』と一段活用化の現象」『國學院雜誌』77-9, pp.48~50

・奥村三雄(1967)「近代京阪語の使役辭」『國語國文』36-1, p.41

・_____(1968)..「所謂二段活用の一段化について-方言的事實から史的考察へ-」『近代語研究』2, 近代語學會編, p.225

・小林祥次郎(1974)「足利學校本『莊子抄』の紹介」『國文學 言語と文藝』78, p.179

・小松壽雄(1982)「近代の文法Ⅱ・江戶篇」『講座國語史4・文法史』, 大修館書店, p.547

・坂梨隆三(1970)「近松世話物における二段活用と一段活用」『國語と國文學』47-10, pp.165~172

・篠田香織(1969)「二段活用語の一段化及びそこに見る言葉への意識」『國文目白』8, p.59

・蜂谷淸人(1968)「狂言古本に見られる一段活用化の現象」『國語學』74, pp.56~61

・山縣浩(1982) 「活用型の變化から見た上方繪入狂言本 -二段活用の一段化の場合-」『語文研究』52, pp.171~172

・湯澤幸吉郎(1957)『增訂江戶言葉の研究』, 明治書院, pp.390~ 394, 506~ 509

・拙稿(1999) 「『雜兵物語』에 있어서 二段活用의 一段活用化現象 -東國語資料 및 上方語資料와 比較를 中心으로-」『日本語學研究』1, 韓國日本語學會, pp.56~57

・____(2002) 「근세초기 가미가타어(上方語)에 있어서 2단활용의 1단활용화현상에 대한 일고찰 -중기 가미가타어와 비교를 중심으로-」『日本文化研究』6, 韓國日本學協會, pp.502~505

・____(2003a) 「江戶語에 나타나는 二段活用의 一段化 傾向과 完了時期에 관한 考察 - 江戶中期 이후 上方語와 비교를 중심으로-」『日本文化學報』17, 韓國日本文化學會, pp.17~40

・____(2003b) 「江戶中期 이후 上方語에 나타나는 二段活用의 一段化現象에 관한 考察 - 一段化의 傾向과 完了時期를 중심으로-」『日本學報』55, 韓國日本學會, pp.15~36

要　　旨

本稿では、江戸中期以後における江戸語に現われる助動詞の一段化の傾向について、(さ)すると(ら)るる間の遅速差を中心にして明和～文化期の江戸語資料76種の實態の分析結果に基づきながら、中期以後における上方語との比較を通して考察して見た。その結果、助動詞の内部間における遅速差を中心にして幾つかの特徴的事實が明らかにされたかのように思うが、これをまとめると、大略次のようである。①(さ)するの一段化(92.5%)は(ら)るるの一段化(72.0%)より早い。②「する」の一段化(92.1%)は「るる」の一段化(71.7%)より早く、「さする」の一段化(95.2%)は「らるる」の一段化(73.0%)より早い。③音節數の多少、卽ち「する」と「さする」及び、「るる」と「らるる」間による一段化の遅速差は見られない。④江戸語の一段化(78.2%)は上方語の一段化(52.9%)より早い。⑤終止・連体形の一段化(78.8%)は已然形の一段化(61.1%)より早い。⑥文体的な面から見ると、會話文の一段化(89.8%)は地文の一段化(51.0%)より早い。

この中で、傾向③((ら)るる)⑤⑥は内部間によって異同は見られるものの、全体から見ると上方語と一致すると言えよう。特に、ここで注目を引くのは傾向①②と④である。前者は(さ)すると(ら)るる間の遅速差を立證する、重要な絲口を提供してくれるからであり、後者は江戸語における進一歩した傾向を見せてくれるからである。

KCI

キーワード：江戸語, 上方語, 助動詞, 一段化, (さ)する, (ら)るる

투　　고 : 2004. 5. 31
1차 심사 : 2004. 6. 12
2차 심사 : 2004. 7. 3

住　所 : (561-78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동국해성A 104동　304호
電　話 : 063-252-6361
E-mail : kygyun@hanmail.net